



자립준비청년 자립의 길 5년,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합니다



관계부처합동

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
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,
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
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.

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
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
「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


※ '보호종료아동' 명칭이 '자립의 주체'라는
능동적인 의미를 담은 '자립준비청년'으로 변경됩니다.

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

현행

개선안



- 만 18세 + α
-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시설급여 지급

-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 + α
-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도입 검토



- 친권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법정대리권 공백 등

- 지자체가 친권상실·제한 적극 청구하도록 개선
-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

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

현행

개선안



기관 8개 시·도 자체 운영

전국 17개 시·도 운영
(국비 지원)

인력 40여 명

전국 120명 배치

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




경제 안전망

현행	개선안
 <p>- 보호종료 3년 이내 지급</p> <p>자립수당</p>	<p>- 보호종료 5년 이내로 확대</p>
 <p>- 정부 매칭비율 1:1 - 정부 지원한도 월 5만원</p> <p>아동 자산 형성</p>	<p>- 정부 매칭비율 1:2 - 정부 지원한도 월 10만원</p>
 <p>- 1인당 최소 500만원</p> <p>자립 정착금</p>	<p>- 지원금액 상향 추진</p>
 <p>- 소득공제 시기 만 24세</p> <p>생계급여</p>	<p>- 보호종료 5년까지 변경</p>

주거 안전망

현행	개선안
 <p>- 보호종료 예정 및 종료 5년 이내 무주택자</p> <p>지원대상</p>	<p>- 보호연장아동 추가</p>
 <p>- 10개 시도, 377명 지원</p> <p>주거비 등 사례 관리</p>	<p>- 전국 1,000명 이상으로 확대</p>
 <p>- 원룸형 주택</p> <p>주택유형</p>	<p>- 중형주택 추가(전세임대) - 역세권 등 공급확대(매입임대)</p>

4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

 진로·진학	진로상담	커리어넷 보호(종료)아동 특화상담 창구 마련
	대학	사회적 배려 기회확대를 위한 대학협의체 협의
	장학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강화 -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
	기숙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기준 개선 - 각 대학 기숙사 지원강화 협조
 고용·훈련	취업지원	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제도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
	직업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이스터고 특별전형 포함 -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우대
 자립역량	자립체험	일상 속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
	경제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민금융진흥원 협업 교육 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
	정보제공	자립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마련

5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



상담·
치료

- 보호~종료 **심리지원 사업 확대**
- 심리지원 **체계화 방안 마련**

자원연계

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등
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



바람개비
서포터즈

권역별 바람개비서포터즈
운영으로 **참여인원 확대**

멘토링

학교전담경찰관 **멘토 지원** 및
범죄예방 교육 지원



의료이용 실태분석 기반으로
의료 지원방안 검토

6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



자립지원 관련 **규정 구체화**



- **지자체로 발급주체 일원화**
- 온라인 발급 추진



‘보호종료아동’ 명칭을
‘자립준비청년’으로 변경 추진



아동권리보장원 중심
민관 소통·자원연계 강화

정부는 **자립준비청년**이
우리 사회의 **당당한 구성원으로**
성장할 수 있도록
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!

